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

익산시, 탄소 중립·기후 변화 대응...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익산시가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환경안전국은 올 한해 생태도시 조성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과 함께 가족 단위 친환경 관광지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익산시는 다양한 식생 구조와 자연경관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도심형 생태관광지 조성에 주력한다. 금마저수지 일원 서동생태관광지에 연내 완공 예정인 식물화습원을 비롯해 예곡캠핑장, 생태볼리터 등의 시민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55.6KM에 달하는 들레길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정비하고, 금마저수지에는 수변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민이 원하는 만족도 높은 생태공간 조성 계획 단계부터 주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한다. 또한,

인근의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과 함께 가족 단위 친환경 관광지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차·수소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사업 등에 총 278억 원을 지원한다.

4억9천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연내 시내 지역 모든 초등학교(49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해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익산 시민청원 제호를 해결해 대시민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또한 공원 분야에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가로숲길, 스마트가든, 어울림 정원 등을 조성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원 분야 사업 추진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선순환 생활문화 확산 노력도 계속된다.

기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성장별에서 권역별로 변경, 잔재 쓰레기 방치로 인한 민원을 원천 해결하고 책임수거제 실시를 통한 질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오랜 시간 시민들을 괴롭혔던 환경 문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생태 회복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1,300여개소의 악취배출사업장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분석과 주요지역 악취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익산시, 내달 28일까지 온라인·담당 부서 방문 신청

익산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절 30개 업종, 8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와 담당 부서를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방문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빌미로 해소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절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해당 업종을 선택하여 각 필수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불편하신 분들은 업종별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세무행정분야 행정서비스 확대 시행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군산시가 새해부터 세무행정분야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기본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급업무를 진행해 왔다.

시는 1월부터 접근성 및 편리함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요구와 비대면 생활 환경으로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자(SMS) 및 카가오목으로 환급금 신청 및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업무시간내에만 신청가능했던 신청 제한을 벗어나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맞춤형 지방세환급 서비스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20일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개 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549필지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조정금은 고지일로부터 6개월내 지급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올바르지 않아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적불부합지의 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동시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부과할 때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다이로움 인센티브와 결합... 골목상권·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20일 시는 범시민적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이 시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1월 20일 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

자 영주권자 등 약 28만여명이다. 재원은 예비비 등 현재 익산시가 보유한 자금 280억원이 투입된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 선불카

드로 2월 중 주수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다음달 시의회 긴급입시회를 통해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결정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임인년 읍면동 연두순시 주요사업 청취

군산시는 2022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21일부터 옥산면을 시작으로 9일간 읍면동 연두순시를 시작한다.

이번 연두순시는 코로나19에 따라 49명 이내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새해 읍면동 연두순시를 통해 지역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한 청취와 시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군산발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적용할 예정이

다.

특히, 읍면동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즉답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장이 배석해 신속하게 처리 후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두순시에서 언급된 읍면동별 지역 현안에 대해 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며 “이번 2022년 연두순시가 군산이 합찬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